

2021 네모의 꿈

아파트학교 활동기록집

도시문화 일상학교 2021

네모의 꿈



도시문화 커뮤니티
‘네모의 꿈’ 아파트학교 활동기록집

네모의 꿈

2021 활동기록집



1. 네모의 꿈 소개

2. 네모의 꿈 참가자 인터뷰

- 노인복지
- 소통 및 주민 화합
- 유휴공간 활용

3. 전문가 간담회

네모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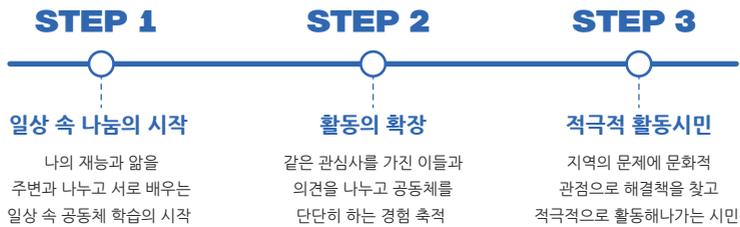
1. 네모의 꿈 소개



네모의 꿈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소통하는 도시문화일상학교 <네모의 꿈>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도시문화 일상 학교의 활동 주체를 확장하여, 구성원이 함께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가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생활공동체로 자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같은 생활 공동체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이 기획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운영의 자발성 확보, 일상의 공간이 배움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함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파트는 이제 도심 속의 거주 공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낼 때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활동아파트 지도



네모의 꿈

2. 네모의 꿈 참가자 인터뷰

- 노인복지

백설마을 주공2단지, 김순애 주민강사
코오롱 하늘채, 김재섭 대표활동가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 진종연 대표활동가

- 소통 및 주민 화합

광고 중흥S클래스, 한효진 주민강사
고색 태산1차, 조미경 대표활동가
영통 동보신명, 정문희 대표활동가
민영 루이스, 김세연 대표활동가
광고 행복주택, 박경식 주민강사

- 유희공간 활용

광고 호반마을21단지, 조해란 주민강사

백설마을 주공2단지

박종례 대표활동가 / 김순애 주민강사
“국악으로 힐링하기”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자3동 백설마을 공동체는 어르신들이 많은 세대예요. 저는 이십 년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네모의 꿈>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활동을 전혀 못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이 노래와 운동을 통해서 활동을 조금씩 하셨어요.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 진도를 올려갔어요. 함께 하다 보니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면서 어른들끼리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몇 주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경로당에서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주민 회의실에서 모였어요.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저희는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빨리 끝났어요. 경로당 사무실 관리소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11월 말에 일찍 활동을 종료했어요. 봉사하는 것과 또 다른 아파트 교류하는 것, 그리고 수업 다 끝나고 발표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노래는 많이 못 했고요. 노래는 음원을 녹음해가지고 다들 전화기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공연을 해야 되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끝날 때 한 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했어요. 어른들은 비디오투를 보면서 따라 하기를 했습니다.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재미있던 거는 어느 한 사람이 그날은 내가 한번 강사가 돼 보는 것도 괜찮겠다며 해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자기 몸에서 동작들이 우러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셔서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어른들한테 노래 녹음한 거를 전화기로 전달해 가지고 집에서 공부해서 가져오게 하고, 가사 외우게 하고 그리고 가사, 악보 적어 가지고 벽에다 붙여 놓고, 서로서로 응원해 주시고 잘했어요. 다른 아파트하고 교류도 있었는데, 어르신들 세 분 모시고 가서 교류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저만 다녀왔어요.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전체적으로는 젊은 사람보다도 더 의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나이 먹으면

못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무리할 때는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었는데요. 한 번도 속눈썹을 붙여보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옛날 분들이니까. '아,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활동 많이 못 하는데 이렇게 매일 나와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웃고 즐겁게 보낸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또 재미있었던 모습들은요. 약간 몸이 불편한 분들께서 가방 들고 아침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같고 언니 같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나면 더 좋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더 친숙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생활을 알게 됐고요. 내 생활하기도 바쁘는데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뵈게 되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것도 보고, 그 와중에도 또 틈새를 이용해서 또 자기 건강 체크하고 병원을 혼자서 다니시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나도 일일 강사' 시간에 한 분이 훌라후프를 가져오셔서 가지고 그걸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 많이 못하는데 이렇게 매일
나와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웃고 즐겁게
보낸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예요. 나이가 칠십칠 세. 알고 봤더니 아침마다 두 시간씩 스트레칭하고 동네를 두 시간씩 걸어 다니신대요.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 본받을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 '나도 일일 강사' 시간에 어떤 어르신이 '난 못 해 못 해.' 했는데도 딱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총동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또 한 어머니께서는 우울증 걸려서 웃음치료를 배우셨나 봐요. 그런데 그 어머니 특이한 웃음 소리, 입을 크게 벌리고 얼굴로는 웃지 않고 소리만 크게 질러요. 그러면 다들 배꼽 잡는 거죠. 나중에는 그 어머니 오시면 인사가 그냥 웃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뭐라도 있으면 가져와서 나눠

주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활동 마지막 날에 어르신들이 2,000원씩 걸어서 동태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딱 한 번 그렇게 밥을 같이 먹었네요. 생각해 보세요. 동태찌개 끓이겠다고 2,000원씩 걸어서 며칠 전부 터 정자 시장에 다니면서 동태 사고, 무 사고,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동태찌개였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랑 회장님한테도 상의를 먼저 해보고 또 이러한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는 충분히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강사가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학교 가는 모습, 가방 들고 오는 모습, 느리더라도 열심히 프로그램 참석하러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행복을 느끼는데,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재단에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일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를 기르고 싶어요.



코오롱 하늘채

김재섭 대표활동가 / 이영관 주민강사
“스마트폰이 즐거워”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서수원에 위치한 676세대의 아파트이며, 주변에 일월호수와 일월공원이 있습니다. 활동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 두었지만, 행사를 진행하며 한시적으로 오후 시간대에 인원 제한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60대, 70대,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 함께 했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은퇴한 후 구연동화 강사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찾아가는 전래동화, 구연동화 등을 했었어요.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스마트폰이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을 잘 알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과 디지털 격차가 매우 크죠. 그 간격을 조금

이나 좁혀보고자 스마트폰 기능 자세히 알려드리고, 배우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기, 사진 찍기, 동영상 찍거나 편집하기, 음악 듣는 법, 유튜브 보는 법, 검색하는 기능, 다양한 앱 활용하기, 번역기 사용하기, 영상 통화하기, 이모티콘 보내기 등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을 강의했던 이영관 강사님은 그전에도 포크댄스 강사를 하시면서 우



리 아파트에서도 유명했어요. 시민기자도 하시고, 39년간 교육자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동 대표도 하고, 아파트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중간에 다른 지역 강사와 민요 노래 교환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설마를 주공2단지 아파트는 '국악으로 힐링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곳인데, 저희 아파트와 교환 수업을 한 번 하게 되었어요. 이영관 강사님의 아이디어인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다들 민요와 가락을 좋아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것 워낙 좋아하니 제약 때문에 아쉬움이 컸죠.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그때 배우신 분들이 서로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영상도 보내면서 지금도 소통하고 있어요. 정말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

었죠. 같이 자주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물론 배우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죠. 이러한 소통 덕분에 회원들의 사회성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년(2021년) 89세였던 김영숙님은 올해 90세가 되셨어요. 그전에는 폴더폰을 사용했는데 수업 들으신 이후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매일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면서 말도 못 할 만큼 신기해하세요. 매일 카톡하고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고맙게 생각했죠. 이런 기회 계속 생기면 좋겠다고 해요. 배우고 싶어 하고.



“ 그때 배우신 분들이 서로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영상도 보내면서 지금도 소통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공간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거리감이 있더라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활동 일지를 쓰기가 까다롭고 힘들었어요.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하면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문서 작업 같은 것은 좀 덜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정적인 활동도 좋지만 활동적인 것, 동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댄스나 운동 같은 것들이요. 다른 곳 보니까 신체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춤, 댄스, 기체조 등 건강에 도움 되는 것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주민 강사들이 발굴되면 좋겠네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우리가 진행한 <네모의 꿈>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웃 아파트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사업 조건이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강사, 대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어요. 아파트 공동체가 서로 교류를 해 나가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단절된 속에서 함께 모여 스마트폰 소통하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카톡 방에서도 자주 만나고, 서로 소식 주고받으면서 이웃으로 잘 지내도록 해요.

—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

진종언 대표활동가 / 남해복, 이현무 주민강사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상생”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350세대가 살고 있어요. 저희가 <네모의 꿈>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파트가 평소 소통이 조금 미흡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봤는데 실제로 잘 안됐습니다.

저는 지금 경로당 총무로 일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 경로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모일 때는 바로 옆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또 리브로방이라고 원래 도서관이었던 공간을 북카페로 개조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부했고요.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교육 내용은 주로 노인들을 위한, 예를 들면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대 방지, 노인 공경 등을 주로 했어요. 또 저희가 전문

강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치매 교육을 담당했어요. 스마트폰 교육은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18번 했습니다. 서로 견학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총 20회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좀 수업을 한번 해 보려고, 수원시에 저희가 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한두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전체 소독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 오후에 경로당으로 모여서 교육을 했는데, 띄어 앉기라든지 온도 체크와 같은 것을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제약은 잘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예요.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참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이지 않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저희는 대면 교육도 했지만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면 참 좋겠는데 안 돼서(웃음) 저희는 경로당 회비를 받아서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 무릎 담요를 사서 5회 이상 참여한 분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인센티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종전 회장께서 수원여대하고 같이 식단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저희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하루를 했어요. 수원여대에서 친환경 먹거리 박스를 가져와서 고구마랑 옥수수 스무 박스를 아파트 주민들하고 나누려고 미리 통보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서 옆 동네 경로당을 초청했습니다. 18명이 방문해서 교육을 듣고 상품을 저희가 나눠 가졌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덕분에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죠.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네모의 꿈>을 해 본 건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한두 번 계속 활동한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개 정도 다른 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몰라서 교안 만드는 데 굉장

히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ppt 파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범사례 같은 것을 띄워주면 쉽게 여러 명이 접근하고 신청을 할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다음에는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면 많은 참여자들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희도 보면 약기라든지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중에 그런 것을 기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저희가 강사를 초청을 한다 그러면 강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한데,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추후에 아파트 주민강사들끼리 품앗이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든든한 지원이요?(웃음)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때도 마스크 끼고 교육 참석하느라 수고도 많으셨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중흥S클래스

박미희 대표활동가 / 한효진 주민강사
“건강과 힐링의 하와이춤, 훌라”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고 중흥S클래스에서 <건강과 힐링의 하와이 춤, 훌라>으로 사업에 참여한 훌라 강사 한효진입니다.

광고 중흥S클래스는 신규 입주 아파트인데 올해 3년 차밖에 되지 않아요. 시설은 좋은데, 입주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그래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더더욱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죠. 앞집, 옆집 모두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웃을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규 아파트여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 공간은 매우 좋아요.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웃도 알아갈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만약 사설 업체 혹은 개인이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다면 아파트 관리소

에서도 쉽사리 공간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리실에서도 흔쾌히 사용을 허락해 주었어요.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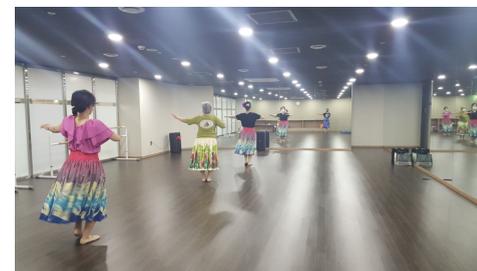
아파트 내 GX룸에서 훌라춤 배우는 프로그램 진행했어요. 공동체 대표도 입주민이고, 강사도 입주민이고, 참가자도 입주민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 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쉽게 생겼어요. 강사 입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고, 강사비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제 노력이 무료 봉사로 그치지 않게 되니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입주민 입장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아파트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하와이 춤 훌라를 배우게 되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자세를 교정하고, 힘없는 배나 허벅지 근육 등을 채워주고 건강해지죠.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임에도 훌라를 추면서 몸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네모의 꿈> 훌라 수업에서 만났던 분들은 지금도 계속 훌라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금지 때문에 줌으로도 수업을 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나 이 드신 분들은 노트북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화면 보기도 한계가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집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었으면 하는 마음에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도 컸죠. 그래서 '파트 마당에서라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나길 원했습니다. 다들 집을 나오고 싶어



했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3명씩 돌아가면서 모여서 하자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네모의 꿈> 1기 때는 입주민들 중 성인만 대상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40대부터 70대까지 중년 이상의 분들의 친목 형성에는 도움 되었어요. 서로들 '우리가 이런 거 언제 해봤겠냐' 하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죠.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훌라 배우면서 다들 본인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웃는 계기가 되고 이웃들이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다고 해요. 내 몸은 몸대로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30대의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훌라 프로그램을 열어서 성인반, 어린이반 두 개로 나눠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엄마들은 아이들만 수업에 맡기고 본인은 한두 시간 자유시간을

“ 공동체 대표도 입주민이고, 강사도 입주민이고, 참가자도 입주민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 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 ‘같이 한 번 해 볼까?’ 하는 마음이 쉽게 생겼어요.”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믿을만한 선생님께 아이를 맡긴 후 장 보러 가고 쉬러 가는 듯했어요. 30대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점은 아쉬워요. 아이들도 부모나 조부모에게 훌라춤 배운 것 자랑하고 좋아했는데. 공동체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네모의 꿈>을 하면서 아파트 공공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이었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된 점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네모의 꿈> 사업 이후 활동 공유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서로의 활동 공유하고, 줌으로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기회 없이 사업이 끝나버리면서 다른 아파트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었어요. 사업이 끝나고 피드백이나 나눔의 장이 이뤄지지 않은 게 아쉬웠어요. 재단에서도 노력한 만큼 참여하는 시민들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감 가지면 좋겠어요. 마무리 과정까지 서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마음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번 사업에도 으샤으샤 열심히 독려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 성과 공유회나 타 아파트와의 네트워크 등이 전체적인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훌라가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는 매번 새로운 것을 원하겠지만, 저희 중흥에서 훌라 하신 분들이 40대부터 70대까지예요. 지금 이것을 배워서 나중에는 공연도 설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만들어드리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훌라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의 운동과 다르게 성취감과 만족감이 크거든요. 아마추어지만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면 다들 신나

서 하시거든요. 서로 독려하는 기회도 되고요. "우리 한 번 해볼까?" 하는 작은 마음으로 공연을 시도하고 나면 삶의 활력이 되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앞으로 훌라를 통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 대상층도 넓혀나가면서 무언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서류 작업은 대표 활동가가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수강생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재단에서 비용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수강생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나 비용적인 노력을 들여서 배워야 열심히 하게 되세요. 아무 말 없이 결석하면 참가하고 싶은 다른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면 앞으로 더 잘 운영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한 주민들은 모두 감사함 그 자체였어요. 단지 내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훌라로 이어진 선생님들, 어르신들 감사드려요. 저에 대한 예우도 좋으시고, 믿고 따라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좋은 분들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색 태산1차

조미경 대표활동가 / 지정은 주민강사
“천연비누 만들기”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고색동에 있고, 6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활동한 공간은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관리동 지하에 학습장이 있어요. 몇 년 전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지원한 학습마을만들기로 조성된 공간이에요. 마을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평생학습 주체로 만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주민들의 배움 공간으로 계속 사용된 곳이에요. 저희는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마을 주민이 강사고, 활동가도 주민이어야 해서 마을 주민 중 강사를 섭외했어요. 지정은 강사님께서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강사님은 그전에도 마을에서 몇 번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기존에 알았던 분이예요.

총 24회를 했어요. 월, 수, 금으로 일주일에 3번씩 8주간 했죠. 저희는 천연비누를 만들었어요. 멀리 안 나가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편한 옷으로 입고 나와, 안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재미난 수업을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죠. 수업료, 공간 임대료, 재료비까지 많은 방면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였죠. 특히 천연비누라 재료가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원해 주셔서 좋았어요. 게다가 서로 몰랐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람 사귀고, 그렇게 모르는 사이가 서로 인사하는 사이가 되어서 좋았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4인까지 밖에 모임을 못 하

“ 서로 몰랐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람 사귀고, 그렇게 모르는 사이가 서로 인사하는 사이가 되어서 좋았다고 해요.”

니까 모집은 3명만 했어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죠. 활동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어요. 활동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도 못 나가고 우울했는데, 지원 덕분에 쉽게 참여하고 재미있어서 즐거웠죠.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비누를 참가자들이 만들고 바로 가져가니까 좋아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참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번 비누 만들기뿐만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아로마 캔들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만나고 소통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지금은 다 문 닫고 있지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그런 만남을 한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데, 대표로서 어땠나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이 많죠. 주민들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사실 저는 서예 강사예요. 캘리그래피도 하고. 아파트 공간에서 캘리그래피도 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희는 비누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서 쓰기도 했어요. 관리소에 나눠드리기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노인정과 같은 곳에 나눠드렸어요. 혹시 기부하겠다고 하면 기부받아서 나뉘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물도 하고. 덕분에 아파트 내에 입소문이 나서 처음 모집했던 인원보다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나왔죠.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게 아쉬웠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월, 수, 금 인원을 다르게 모았어요. 작년(2020년)에는 1회에 6명씩 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더 줄었죠.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로마테라피로 할 수 있는 캔들 만들기 싫어요. 주민들도 비슷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하시고요. 심신 안정에도 좋고, 다른 곳에서 배우기 힘든 것들 아파트 공동체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수업료와 재료비, 홍보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셔서 이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다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같은 것은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만들어 준 수원문화재단에 감사드리고, 사업 진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길 바라죠.



영통 동보신명

**정문희 대표활동가 / 박명숙, 전기순 주민강사
“영트리오와 마담5060”, “마크라메 가방만들기”**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5년 된 오래된 아파트의 주민 회의실 공간이 있었어요. 입주 초창기에만 사용되던 곳이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방학 때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간혹 사용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모의 꿈> 덕분에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주민들도 대부분 노년이나 중년이라서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저도 중년을 넘어서면서 미래의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정이 넘치는 아파트, 소통이 있는 마을로 만들어 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생활지원사라고 독거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저랑 그런

게 잘 맞았죠. 어르신들 중 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노인복지사업이에요. 전화 안부나 방문 안부 및 집안 안전 등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프신데 병원 못 가시는 분들 병원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생활지원사 중 영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나 마을활동가 등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주민강사로 아파트에서 통장이신 박명숙 강사님과 함께 했어요. 각 동마다 게시판에 강사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공예 쪽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노인정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아시고, 아파트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신 박명숙 통장님을 섭외하게 되었어요.

“ 매일 얼굴 맞대고 시행착오 하는 것도 즐거웠고, 어르신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보람이 컸습니다.”

통장님 통해서 노년층 어르신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통장님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크라메 매듭 만들기를 배웠어요. 한 달 이상 매일 만나서 같이 공부하듯이 독학했어요. 매일 얼굴 맞대고 시행착오 하는 것도 즐거웠고, 어르신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보람이 컸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덕분에 서로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성당도 같이 다니게 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간다는 기쁨이 컸어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마크라메 매듭 만들기 수업은 4회 했었고, 기타 연주 동아리를 추가로 했어요. 마크라메의 경우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았어요. 모일 때마다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은 예술모임이 적합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요. 기타 동아리에 강사님 잘 섭외해서 배우면서 자

극이 되고, 동아리로 유지가 되었거든요. 악기 연주는 꾸준히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만들기는 일회성이라는 장점이 있고, 기타 동아리는 꾸준히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 관리소장님과 함께 벼룩시장이나 바다를 열어서 서로 안 쓰는 물건들 나눠쓰고 바꿔 쓰는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데, 즐거움을 위한 음악 같은 활동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로 만드는 일 같아요.

우리 동아리가 추후 가볍게 연주하면서 사람들 주목 끌 수도 있고, 밖에 나와서 궁금해하고 귀 기울이게 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기타 연주 동아리가 한몫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루어낼 많은 일을 생각하면서 매주 2회씩 지속적으로 지금도 복습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워나가면 연주도 할 수 있겠지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도 있었고, 주민 강사 찾기가 어려웠어요. 노년층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공예가 접근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마음 맞는 강사 한 분과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유튜브 보고 섭렵했어요. 한 달 이상 매일 만나서 공부하고 해 보고 고생하면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강사비와 재료비가 지원되어서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낮 시간 평일에는 참가하기 힘들어 모집이 어려웠어요. 방송도 여러 차례 하고 게시판에도 공고문을 올렸지만 코로나 상황이고, 노인들이 많이 계신 아파트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이 어렵더라고요. 통장님과 함께 노인정 가서 인사드리고, 참여 독려를 부탁드렸어요. 젊은 층 아가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고, 낮 시간대 함께 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대면 수업 어려울 때는 줌으로도 했어요. 악기 연습 같은 경우 9~10명이 줌 상에서 수업을 듣고 연습했는데, 집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고,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관리실 공간에 모여서 했어요. 줌으로 할 때 단점은 여러 명이 줌 화면을 켜면 하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웠어요.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핸드폰 가방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나는 잘 못 해" 하면서 자신감 없어하고, 젊은이들이 끼워 주지 않아 소외감 느끼잖아요. 마크라메처럼 유행 공예품을 만들면서 젊은이들과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마크라메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성격이 활발하지 않아 외로운 분이 계셨는데, 이곳에서 친구 만나서 함께 성당도 가게 되셨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마크라메 같은 경우는 4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았어요. 15명 정도. 원래 여러 사람 모여 떠들고 웃으면서 재밌게 배우는 게 취지였는데, 다소 아쉬움은 있죠. 그렇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냐,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까지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인원 모집도 힘들어서 주민들이 관심 없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참여하게 되니 재단 지원 덕분에 부담 없이 좋은 것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해요.

근처 신도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여기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아 우리 아파트는 커뮤니티 건물도 없고 낡고 노후화돼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의 건물이나 공간 등 잘 살려서 함께 하는 모습 보여 주니 다들 '좋은 활동 하고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세요. 코로나 풀리면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요.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지나다니지만 가다가 얼굴 마주치면 반갑고 좋아하세요. 아파트 주민으로서 자부심도 느껴진다고 해요. '내가 우리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잘 이끌어가야지' 하는 구상도 하게 되시고요. 저 역시 '다음엔 어떤 걸 시도해 볼까?' 하면서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수원시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여러 번 했어요. 평생교육사 주민활동가로 사업계획서 만들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활동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보상이 너무 없었어요. 고생은 활동가가 하는데 보상은 없는 경우. 그런데 이번 <네모의 꿈>같은 경우 활동한 사람들의 고생을 알아주더라고요. 미미하지만 큰 힘

이 되고 기뻐어요. 일선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 하는지 힘은 드는지 알아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파트에서 기타 동아리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면 기타 연습과 공연을 위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영어나 한자 배우기 등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취미생활, 예술 활동에 흥미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댄스 강사가 없었는데, 광고21단지에는 홀라댄스 강사가 계셔서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아파트와 프로그램 교류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홀라춤을 처음 접해보니 신이 났어요. 홀라 강사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알려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문화재단의 취지를 잘 알게 되더라고요. 올해



다시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아파트와 프로그램 교류하는 것도 해 보고 싶네요. 참가한 주민들도 다음번에 홀라도 배우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특별하게 아쉬운 점이나 바램은 없지만 한 가지 건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배제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프로그램 성향상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악기 연주 같은 건 연습이 중요한데 그런 경우 계속 만나서 연습하며 실력도 향상되거든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분들이 함께 참여한 후 다들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이런 프로그램 기획해 줘서 고마워요. 수원시민으로서 행복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관심 없던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관심

을 갖게 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예요. 취미생활을 찾고 있었다면 반가워하신 분도 계시고요. 20회차 진행하면서 얼굴 붉힌 적 없고, 재미있게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공동체 활성화 위해서 자주 참여하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동아리 회원들 모두 문화재단과 수원시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민영 루이스

김세연 대표활동가 / 주옥경, 김규영 주민강사
“배워서 남주자”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근에 큰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 주택 사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게 애매모호하지만, 지리적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요. 조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근 북쪽으로는 숙지산, 남쪽으로는 서호 공원이 있어서 편하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잘 관리되고 깨끗한 아파트예요.

보통은 공간이 있어야지 활동이 되잖아요. 공간이 전혀 없었는데, 관리실 옆에 한 3~4평 정도 되는 창고 같은 공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선 방으로 만들자고 해서 과거에 수원시 공모 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공간을 만들었어요. 일단 공간을 하나 만들고 나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만든 기념으로 방 이름도 짓자고 해서 주민들한테 공모를 진행했어요. 투표를 하고 뽑힌 이름이

'한울타리'예요. 이제 한울타리 방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다 알죠. 근데 방이 작은 게 되게 아쉬워요. 어쨌든 그 방을 거점으로 <네모의 꿈>도 시작을 하고.

이후에 빈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하에 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비우고 새싹 인삼을 키웠어요. 공모 사업이란 게 재미있더라고요. 덕분에 도시농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갈 곳이 두 군데가 생긴 거예요. 이쪽은 한울타리 방, 그쪽은 하우스팜, 흙팜. 근데 거기에서 뭘 하기는 또 좁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한층 더 내려가니 기계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널찍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한 편



에서 연습하자'해서 그곳에서 악기 연습해요. 처음에는 벽돌 갖다 놓고 하다가 요즘은 살림살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어울려 놓고 만족하고. 소확행 같아요. 작은 행복 찾아가는 거.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공간과 예산이 생기니까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엔 생각을 많이 사서 청을 만들어 세대마다 다 한 개씩 드렸어요. 이후에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수업을 해주실 분을 찾았어요. 그중 맥주 수업을 해주실 분이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어요. 맥주 효모뿐 아니라 구매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배울 때 너무 신기해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사 먹게 되었죠. 그다음엔 바느질을 배웠고요. 이후에는 바느질 업그레이드 버전, 재봉틀도 했어요.

지하 공간에서는 악기 수업을 했어요. 악기 연주는 <네모의 꿈>이 끝나도 여전히 3개월 정도 모여서 연습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에서 축하로 악기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연습 중이에요. 또 저희가 자주 구경 가지만 구경만 하기 지겨워서 운동 기구도 갖다 놓고 운동해요. 각자 집에 안 쓰는 운동 기구를 가져다 놓고 운동하다 보면 오전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헬스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스크린 골프도 재미있더라 하며 의견도 제시해 주셨어요. 옥상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옥상을 쓸 수 없는 구조라 안타까워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틀 안에서 커다란 변경은 없었고, 기존에 진행하는 것에서 작품을 변경했어요. 악기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걸 재봉틀과 달라서 중고거래로 구비했다가 반품도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장난감 드럼을 사서 계속 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 색소폰으로 바꾸자고 해서 또 악기 바꾸고. 플루트를 불었는데 재미없어서 바꾸게 되고. 악기 바꾸는 상황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제 안 바뀌겠죠. 이제 비싼 악기들은 다 사셨거든요. 그리고 <네모의 꿈>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문자로 오면 몇몇 분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의견을 모으기도 해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분반을 했어요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나누는 것도 해봤고 줌으로 하는 수업도 해

봤었거든요. 비대면 수업하자 안 되겠다. 해서 최소 인원 2명만으로 노트북 열고 핸드폰 양옆에 놓고 '이거 해보세요.' 하면서요. 또 야외활동도 해보고요.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는 좋은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벽이 없다는 건 좋은데 너무 없으니까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무례하고, 툭툭 던지는 말을 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막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왜 토라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굳이 이걸 계속 가야 하나 고민했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진행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분들은 이만큼 따라와 주겠지'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죠.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재밌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웃긴 일도 많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많고요.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아파트 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층간 소음 문제 해결

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제가 처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시도를 했을 때는 이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주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들끼리 활동하고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위층도 애들이 엄청 뛰어어요. 그런데 저 집 애들이 어리고 엄마는 어디 가고 사위는 뭐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 갔다 오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 뭐 한 1-2년 이렇게 참으면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차를 이중 주차를 해놔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가고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일단 제 관점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아쉬웠던 것은 좀 더 잘할걸. 누군가 기분이 상하면 내가 좀 신경 쓸 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수업 과정 중에도 단계를 정해서 돌아가며 강사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활동가와 강사 모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각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한 분당 세 번씩 나누어서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저희는 프로그램 2개가 들어가서 강사가 2명이 필요하잖아요. 강사 2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놓고 내부 회의를 하셨어요. 강사 2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요. 재단은 문화 분야 내에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보고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또 보고서 작성이 조금 어려웠어요. 강사분들도 마을 주민이잖아요. 강의 일지를 써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컴퓨터로 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손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분들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부탁하기가 힘들죠. 조금 간소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사실 우리 수업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일을 뒤로하고 그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가족 행사도 수업 때문에 뒤로 미루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결석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진짜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누군가가 주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일정을 소화하고 끌고 갈 텐데, 그것들에 거의 불평이 없었어요. 일정이 살짝 바뀌는 것도 다 양해해 주고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고 행복주택

최시언 대표활동가 / 박경식 주민강사 “이웃과 소통하는 움직임의 즐거움”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고 행복주택은 2018년도에 따복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지은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에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각 층마다 육아와 관련된 공공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아파트 내에 협동조합도 3개가 입주해 있거든요. 저는 공동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해있어요. 2~30대 젊은 부부들과 관련된 시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특화해 짧게는 6년에서 아이 유무에 따라 1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죠. 근데 실거주 공간이 좁다 보니 육아와 관련된 커뮤니티 시설,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기 입주주민들 중에 50% 이상이 유출됐고, 현재는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입주한 상태예요. 25% 정도가 매년 세대가 바뀔 정도로 전입, 전출 빈도가 심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리 모여서 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주해 있던 협동조합 중에 한 대표님이 저한테 '〈네모의 꿈〉이라는 게 있다.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했죠. 당시에 대표 회의도 했었는데 와해가 되고 이러다 보니 제가 그때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지원했는데 선정되어서 이후로 3년째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프로그램이죠.

원래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사실 안 쓰는데가 되게 많거든요. 파파 스테이션, 맘 스테이션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구성은 잘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해에는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곳은 6명이 눕게 되면 비좁아져요. 거기서 첫해에는 어떻게든 했는데 둘째 해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희 입주한 협동조합 중에서 '꿈틀 그라운드'라고 하는 장애 아동 운동 센터가 있거든요. 그 공간이 넓어 가지고 그곳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유 시간에 그 공간을 쓸 수 있겠냐고 여쭙봐서 협의하에 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움직임의 즐거움'인데요. 폼롤러라든가 밴드, 매트, 소도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와 실습을 해서 스스로 하는 운동을 통해 최소한의 도구로 건강을 관리하는 콘셉트예요. 그 이유가 저희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헬스장이거든요. 이 헬스장이 굉장히 좁지만 공간이 많이 필요한 기구들이 많아요. 근데 운동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잖아요. 매트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공간밖에 없는데 빠듯하게 누우면 2명 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벨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집 주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운동 관련된 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신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간에서 작은 소도구를 가지고 같이 운동하면서 방법

알려드리고 그걸 계기로 또 같이 어울려서 움직이며 놀아보자는 의미에서 '움직임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제가 운동 관련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저희가 60분씩 2부를 하는데 원래 2시간인데 한 번에 2시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직장인이 퇴근하는 시간이 좀 다른데,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 1부, 8시 반부터 9시 반 2부 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진행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1부 때는 남편분이 아이를 봐주고 2부 때는 아내분이 아이를 봐주는 식으로 해요. 60분 중에 10분 정도는 왜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한 이론을 하고 나머지 50분 중에 40분은 실습, 실제 운동을 해보고 나머지 10분은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거니까 자기소개라든가 주변 맛집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용하기 좋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도서관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팁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화 10분 이론 10분 그리고 운동 실습 40분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렇게 화, 목, 일 이렇게 주 3회, 총 24회 차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60분으로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해요.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하니까. 저희가 출석을 받을 때 처음부터 당일 오전에 출석 여부를 올리거든요. 저희가 만든 단톡방에 1부, 2부 출석 투표를 올려서 인원이 분산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알아서 사람들이 보고 한쪽에 몰릴 것 같으면 저희가 '여기는 몇 명 이상 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제한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 인원이 좀 많다 싶으면 2부로 오세요. 그래서 거의 반반씩 오게끔 알아서들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소독이나 체온 측정은 건 당연한 거고요.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와요. 워낙 이동 인원이 많으니까 전에 했던 분이 그다음에 참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 중 절반 이상은 그 해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이런 활동으로 같이 이어지고 또는 개인적인 만남으로도 이어져서 밥도 먹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람도 느껴요.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거는 저

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간 몰랐던 옆집을 서로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 바쁘니까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있다가 와서 '몇 동 몇 호 누굽니까.' 했는데 그 옆에 분이 '나 그 옆에 집인데요.'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시는 분 중에서는 그냥 딱 운동용품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번 출석을 올리는데 답변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냥 땡 지나가시더라고요. 활동하면서 많이 좋기도 했지만 쓸쓸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예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모의 꿈〉을 시작한 덕분에 용기가 생겨서 수원도시재단 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1년에 두 개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모의 꿈〉 첫해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같이 문제 해결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니까 다행히 교류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분들이 여전히 꽤 있는 편이에요. 아파트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주변 친구나 가족, 지인한테 얘기해 봤는데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주민들도 저희가 만난 게 참 다행이고,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재미있었던 일화가 또 있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시

작했었을 때 그때 오고 싶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아이가 5살, 3살이였대요. 3년 전부터 작년까지 도저히 아이 때문에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가 이제 아이가 7살, 5살 정도 되니까 아이가 컨트롤이 돼서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셨던 여성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내년에도 또 하는 거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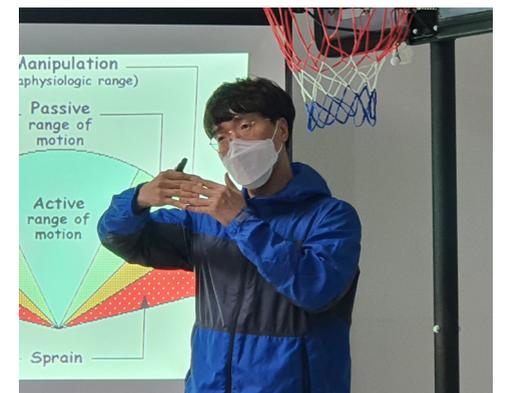
사내 식당은 메뉴가 계속 바뀌어야 하지만, 휴게소 같은 데는 잠깐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시그니처 메뉴가 딱 있어야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필요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게 된 거죠.

한때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걸 고민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동체 공간이 발달장애 아동 운동센터니까 키즈 카페 못지않게 아이템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따라와서 한쪽에서 놀고 엄마들은 다른 쪽에서 운동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거예요. 와이프가 대표 활동가인데 제가 주민들과 운동을 하는 동안 그 아이들과 2시간 내내 놀

아줘요. 끝나고 나면 완전 탈진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을 잘 놀아주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팬클럽이 생겼어요. 서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집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요. 끝나고 매번 사진을 찍는데, 저희끼리 하는 시그니처 포즈도 있어요. 이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어딜 가든 아이들이 그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네요.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네, 활동과 관련해서는 욕심이겠지만 이게 항상 4분기 때 진행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시작하는 건 보통 1분기 때잖아요. 그때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나가기가 좋은데, 4분기 때 진행하고 12월 초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 설 연휴 이후까지 뭔가 서로 바쁘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다 보니 조금 친해졌다가도 그 이후에 연락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반기에 한



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 24회를 몰아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2회를 하더라도 그냥 전반기에 12회, 후반기에 12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주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욕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 대표 활동가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강사의 역할이랑 대표 활동가의 역할을 동등하게 봤지만, 인건비에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대표 활동가의 역할을 많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표 활동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들을 모으고 강의를 세팅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나마 부부니까 같이 하지만 어떤 데는 대표 활동가가 다 만들고. 강사는 그냥 그 시간대에 와서 강의만 딱 하고 가면 되는 그런 구조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2시간 동안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고 있어요. 이게 동등하면 동등했지 대표 활동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작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4주 단기 과정으로 연초에 다이어트 많이 생각하니까 프로젝트로 성인 체력 강의나 아니면 다이어트 자체 모임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원래는 구정이 지나면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지원받은 거 탄력받았을 때 수원도시재단 사업하기 전에 교류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해요.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아무래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요. 예전에 사전 모임으로 서울에서 공동체 활동을 잘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정의 돈을 조금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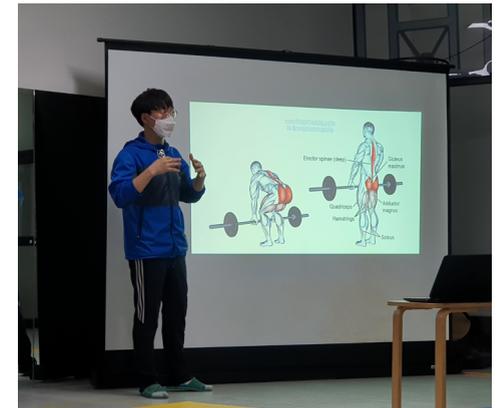


이라도 더 받아도 되니까 그걸 통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2년째 했을 때 회비를 5만 원 책정을 했어요. 그 돈으로 환급제를 한 거였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가 드리는 폼롤러, 매트리스, 밴드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데. 물론 프로그램이 좋고 기구도 중요한데 일단 사람들이 딱 와닿는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야 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야 참여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 올해 아파트 때문에 한 분 나가시고, 내년에 또 한 분 나가세요. 내후년에 또 한 명씩 한 번씩 빠져 나갈 거예요. 저희가 언제까지 여기서 같이 지낼지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중요한 인생에서 첫 시작을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재미있게 좋은 추억 잘 만들고, 각자 인생에서 휴게소 잠깐 같이 들렸으니까 각자의 길로 떠날 때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좀 재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그거면 되지 않나. 그래서 있는 동안에 좀 재밌게 새로운 일 많이 만들면서 재미있게 잘 좀 지내보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잠시 거치는 휴게소인 것처럼, 그 휴게소에서의 기

역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 광고 호반마을21단지

최창식 대표활동가 / 조해란 주민강사
“하와이안 홀라댄스 수업”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고호반마을21단지는 광고호수공원 앞에 위치해서 환경은 쾌적합니다. 그러나 입주한 지 7~8년 정도 되었지만 공동체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살기 좋고 자전거 타거나 걷기 등 개인적 운동하기 좋지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네모의 꿈> 사업 내용을 보고 관리사무소 대표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주민들과 소통, 화합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장식 관리소장님이 <네모의 꿈> 사업 대표로 되어 있으신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고 도움 주세요. 커뮤니티 센터라는 공식 명칭은 있지만 주민들이 공간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죠. 탁구대만 놓여 있어서 가끔 탁구 치러 오는 주민들밖에 없고요.

저희는 이 공간에서 홀라댄스를 진행했어요. 홀라댄스를 하려면 거울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탁구대밖에 없어서 춤 배우기에 부적합했죠. 관리사무소에 거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거울을 구비해주셨어요. 이 동식 거울 두 개를 구매해서 거울을 보며 홀라춤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홀라 강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강의가 대부분 축소되거나 폐쇄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홀라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하와이 홀라댄스'를 했는데, 홀라가 보편적이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벨리댄스, 살사댄스 등 취미로 하던 분들이 홀라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아예 댄스를 모르는 분들도 오셨어요. 홀라댄스는 기초 스텝부터 배워야 하거든요. 기초 수업을 매 시간마다 30분~40분 정도는 기초로 단련한 다음, 어느 정도 기초가 익힐 수 있으면 곡을 배웠어요. 5회차까지 기초훈련을 했어요. 베이직 스텝 배우고, 방향이나 각도 등을 습득한 다음 작품을 배워요.

“ 다들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해진 상태였는데, 수업이 종료되어서 아쉬웠죠.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는 바람이 컸습니다. ”

하와이 홀라춤에는 하와이 전통음악에 맞춰 추지만, 저희는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요 '장미'라는 곡으로 홀라 춤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후 켈라우'송을 배웠어요. 두 곡을 출 수 있게 된 거죠.

하와이 홀라춤에는 하와이 전통음악에 맞춰 추지만, 저희는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요 '장미'라는 곡으로 홀라 춤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후 켈라우'송을 배웠어요. 두 곡을 출 수 있게 된 거죠.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진행해본 활동이 있을까요?

홀라는 춤도 추지만 곡에 대한 해설이나 하와이 문화 등 다양한 것을 가르쳐드려요. 음악에 나오는 가사를 수화로 표현하거나 손짓으로 꽃을 나타내는 법 등이요. 음악과 단어 등으로 마음 치유가 되더라고요. 정신도 풍요로워지고,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하와이 여행을 못 가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가하신 분들께 파워 스커트 입혀드리고, 머리에 플라메리아꽃을 달고 수업을 했어요. 모든 운동이라는 게 복장과 자세를 갖추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편하게 운동복 입는 것과는 기분이 다르죠.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다 보니까 수업 인원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오전반 4명, 오후반 4명 나뉘었어요. 8명 한 번에 수업하기 힘들어서요. 분반으로 나눠서 진행했어요. 다만 줌으로 수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 댄스 같은 경우 줌 수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동작은 따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울 수 없거든요.

아 참, 수업 시간에는 갈증이 나도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정수기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목이 마르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물을 바깥에 나가서 마셨어요.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했어요.

또한 영통의 동보신명아파트 주민들과 교류 수업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기타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기타를 쳐 주시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좋았어요. 직접 얼굴 보면서 만나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류 프로그램도 참여해 주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아파트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다 보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바깥 외부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요. 어딜 다니면서 배우기도 힘들고. 아파트 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아파트 내에서 1분 안에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배우게 되어 주민들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을 덜하게 된 것도 좋아요.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아이들 얘기하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이 다양했거든요. 모든 분들과 소통되고 친밀감을 느꼈어요. 정신적인 교감까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 변화나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참가자 중 한 분은 돌이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고

오셨는데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지신 거예요. 대단하죠. 아기가 잠자는 시간 이용해서 수업을 참여하신 것인데, 다른 분들도 참 좋아했어요. 요즘 아기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갓난아기 보면서 서로 좋아하고, 커 가는 모습도 보니 다들 힐링 되었어요. 다들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해진 상태였는데, 수업이 종료되어서 아쉬웠죠.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과정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곡을 배운 다음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연하는 기회가 축소되었죠. 이렇게 배우다가 꼭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경우 간단한 공연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아쉬운 거죠. 배우고 끝나버리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네모의 꿈> 사업을 또 신청하고 싶어 해요.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한데, 저는 홀라 강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했어요. 웨이트,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해서 춤 배우기 전후로 스트레칭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아파트에서 꾸준히 배울 수 있다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 되겠죠.

그것을 위해 재단이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짧은 시간이어서 아깝긴 해요.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회가 1년으로 안 끝나고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홀라댄스 같은 경우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노력의 결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참가자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매번 수업에 오셔서 나만을 위한 시간 보내고 그 시간 동안 행복해하시고, 저도 교감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여서 시너지가 생겼으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모의 꿈

3.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2022. 2월 23일(수) 14:00 - 16:00, Zoom

- 발표자

성낙경, “공동체 커뮤니티와 공간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
전승용, “마을공동체 활동가로의 발돋움”

- 참석자

남해복,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
진중언,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
이영관, 코오롱 하늘채
모방원, 광고 대광로제비앙
한효진, 광고 중흥S클래스
박미희, 광고 중흥S클래스

김순애, 백설마을 주공2단지
정문희, 영통 동보신명
김세연, 민영 루이스
박경식, 광고 행복주택
최시연, 광고 행복주택
최금선, 화서 위브하늘채

이선옥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오프라인에서 부지런히 만나야 하는 시점인데 온라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장 이선옥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3일에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올해부터 이제 5년 동안 법정 문화도시로서 다양한 시민 주체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도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 나가려 합니다.

현재 수원은 지금 인구 120만의 대도시이기도 하고 계속 도심이 확장되면서 주거 형태의 6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모의 꿈>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전에 마중물 사업인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으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4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올해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마지막 해로서 정리하는 동시에 법정 문화 도시 1년 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네모의 꿈>의 활동들도 차분하게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들의 방향 전환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네모의 꿈>에서 활동해 오셨던 활동가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원이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네모의 꿈>의 성과나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홍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수원문화재단이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낸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재단이 파악한 문제점과 고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처음 진행할 때는 아파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쌍방향 소통형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출발했어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공고를 보내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10개 정도의 아파트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그 안에서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아파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파트 안에서도 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은 거주 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모임과 예술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짚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모의 꿈> 사업의 장점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것과 3년 동안의 활동으로 기반이 다져졌으며, 사업의 인지도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사업들에 비해 특히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이 참여자들과 그리고 활동의 주체, 활동가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고, 재단에서 꾸준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참여 아파트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몇 번 만들어서 다른 아파트들의 상황이나 우리 아파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모이긴 했지만, 이 모임 활동이 문화강좌 또는 단순 예술교육과 같은 활

동에서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아파트에 대한 이슈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과 동시에 문화 활동이 매개가 되는 형태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니까 참여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참여하다 보니 신규로 유입되는 아파트들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아파트들이 반복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계속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반복되거나 같은 강좌 안에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은 강사비와 재료비뿐만 아니라 최대한 모든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지원금 형태가 아닌 담당자가 직접 다 지출을 해드렸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지원금 정산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셨겠지만, 일일이 모든 물품을 구입해 드리고 강사비를 지출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과부하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로부터 5년 동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끝나고 재원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았을 때, 이 활동들이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이 5개 생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생활 권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참여하는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생활 권역들이 별도로 있어요. 장안구나 북수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율이 낮습니다. 영통 생활권이나 광교 생활권에 비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법정 문화도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이 가져가야 하는 방향은 기존과 달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를 문턱에서 다졌다고 한

다면 이것이 문화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도시력이나 문화력이 보이는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에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특화를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강의해 주시고, 참여했던 아파트의 활동가 선생님들도 이와 관련한 의견들을 활발하게 내주셔서 저희가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하며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하며 느꼈던 것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성낙경 선생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경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셨죠. 요즘 코로나가 너무 번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가 격리하다가 일주일 전에 끝났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우리가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하려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에 제가 한 3년 정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만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쨌든 지역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도 많을 텐데 또 내가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은 뭘까?'라는 고민에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의 활동을 보면 운동하고, 요가도 있었고, 가드닝 원예도 있었고, 재미난 댄스들도 있었고, 그림, 공연, 예술 활동 등과 손작업하시는 팀들도 계셨고, 소통과 대화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하거나 책 모임, 인문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

을 하면서 코로나도 발생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도 함께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결국 우리가 그냥 문화 예술 활동,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문화 예술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고 싶었을까요? 수원문화재단에서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기획하고,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공모를 내고 진행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생각한다면, 문화도시 수원의 슬로건인 '서로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를 수원에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살핀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였고, 문제에 맞서는 것은 남의 문제에 맞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에 맞서는 것인데 이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동네 누군가 잘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나는 못마땅하지만, 행정에서 해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행정이나 어떤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구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구하는 식의 주체 변화를 생각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건 단순히 문화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문화 복지가 가능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기획하고 진행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로 자가격리 끝난 지 일주일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감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이 민간을 돕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택 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에는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행정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뎌야 할 뻔했지만, 저는 도움을 받

았어요. 저희는 온 가족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공동체 내에서 약사 선생님이 퇴근하시면서 약을 갖다주시는 관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도 직접 주고 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검사해달라고 올리니까 바로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불편하진 않아?', '아프지는 않아?', '도움 언제든지 요청해.' 이런 전화와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일상의 안전망이 구축된 관계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이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많이 생긴다면, 우리가 바라는 문화도시 수원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같이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수많은 제안들, 문화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망, 주체의 변화, 문화 돌봄 등으로 표현되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찾고, 그 활동들이 우리의 가치들을 이루어 나가고 해결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하려고 했던 문화 프로그램들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내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활동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돌아보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는 어떤 고민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을까.', 재단에서 공모 사업이 나왔으니 그냥 한 번 해보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제안했고 제안하는가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왜 하고 싶은가.' 그 제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지원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고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했는가.' 그냥 지원이 있으니까 잘해보자고 했다면 사업은 잘 마무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업을 잘 마무리한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으로 동네 사람 10명이라도 만나보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10명을 만나고 헤어졌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팀이 있었어요. 너무 이사율이 높아서 정주율이 낮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셨던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은 정주율이 낮지만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여전히 이사 간 사람들이 많아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좌절은 기본이죠. 우리가 생각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신나는 날도 있고 감동받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따라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며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슬픈 날도 있죠. 그리고 어떤 날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드는 날도 있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메롱 메롱하고 있을 때, 어느새 생긴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친구가 만들어지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사업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지원 없이도 모두가 스스로 해나갈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듯이, 그 성장 기간에 조금 덜 힘들도록 도와주는 게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원을 받았으니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지 노력했을 때, 성인이 돼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듯이 지원이 끝나도 우리는 스스로 이 모임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힘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로 시작하는 고민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며,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나는 어떤 고민으로 제안했는가?', '나는 왜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1분씩이라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은 오늘도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아니면 매번 끝날 때마다 필요해요. 그리고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여하신 분 중에는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배우러 온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최하고 제안했던 사람 또는 여러 활동을 하자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살짝 배우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죠. 같이 고민하겠죠. 그러면 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 드린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일상의 경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안했던 생활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거죠.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서로 고민을 던지고, 고민을 받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같이 해결책도 찾아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안전망과 행복도가 상승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줄 테니 요청하라고 한다

는 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돕고 해결하면서 서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흩어져 버린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잃어버린 자기 목소리를 찾기 위한 예술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작은 발견에서 출발하는 예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싶은 삶을 만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모기동 ±1℃)'고 했거든요. 저는 제게 예술가냐고 물어보면 전공이 그림이지만 예술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획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기획자도 이 고민을 같이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만큼 일상의 문화 예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활동해 주신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멋지게 활동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활동을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용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성낙경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에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강의와 함께 늘 꾸준히 참여해 주고 계시는 분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원원에서 잘 자리를 잡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와닿았던 것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사업의 담당자로서 나는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스스로 굉장히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라는 비전에 맞춰서 아파트 사업을 해석해 주신 것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안전

망을 구축하고, 주체의 변화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문화도시가 지향해야 한다고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승용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주임교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저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 잘 알았는데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으로 진행됐었다는 점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도시와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하는지, 고민 지점이 어딘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으로 확장되는 그 지점들'이 결국에는 <네모의 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마을 공동체 활동가로의 발돋움'이라는 주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인천에서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과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연계하고 추진하는 모델,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지속성을 갖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2019-2021)'이라는 것을 지금 3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가분들을 양성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시·교육청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함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며 또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개발(2020-2021)'을 설명해 드리자면 인천문화재단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가를 양성했으니 이분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을문화교육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천서구 제3차 법정 예비문화도시 <생태적 삶 시민조사단>'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진행한 것입니다.

먼저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하다가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19세 이상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내에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활동가를 모집해서 2021년도까지 약 400명 정도를 양성했어요. 여전히 네트워크로 밴드를 통해 묶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관련 프리랜서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가정주부분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활동합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수료식을 합니다. 첫해에는 기관 관계자분들이 모두 모여서 대대적으로 한번 수료식을 했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작고 편안하게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기부터 4기까지 운영하면 이분들끼리 만날 수 있게 별도의 워크숍을 합니다. 1기와 2기가 모여서 하고, 3기와 4기가 모여서 하고, 전체 다 모여서 하고. 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와 각자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줌으로 송출하기도 하고, 혹은 유튜브를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수료증 수여 뿐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인력과 현장 실습도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2급 문화 예술 교육사를 양성하는 교육원이다 보니까 인력과 현장 실습을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단들과 양성한 활동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한 뒤에 서구문화재단과 이후에 설명해 드릴 사업(인천 서구 생태탐구 프로그램 시민 LAB)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연계하여 홍보를 해드립니다. 연수문화재단도 서로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하거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재단에서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렇게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연계하

기 위해서 모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인천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에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5개년 법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마 올해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에 법정 계획에다가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목적 사업이 되니까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도시라는 공모 사업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거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시의 계획에 수립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 '제2차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교육청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시·교육청 쪽에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에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2019-2021)'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고민은 그런 거죠. 항상 저희는 활동가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인력 양성을 하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하죠.', '나 뭐 활동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결국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담당 기관이 계속 일자리 창출까지 해야 해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보만 제공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기초 단위로 가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나, 마을 학교 사업이라든지 혹은 인천광역시문화재단의 생활문화 동아리라든지 혹은 기초문

화재단에 또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으로 결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기가 스스로 연계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기존의 인력 양성하고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가를 저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시·교육청, 재단, 기초문화재단 모두 계속 만나요. 이렇게 해서 활동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드리는 것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팀별로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한적이에요.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그냥 신청하면 다 해드렸는데, 작년 같은 기수가 쌓이니까 경쟁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프로그램 개발까지만 해요. 시·교육청에서 하는 마을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교육청은 학교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제안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의미합니다.(인천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5)' 마을 학교 용어의 정의는 인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은 10개 팀을 뽑아서 10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거기에 멘토도 10명을 각 팀별로 연결해 드리는데, 처음에는 교사로 했다가, 지금은 지역 마을 활동가분들과 교사분들로 구성하고 연결해서 3-4개월 정도 스터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합니다. 언제, 어떻게 수료하셨는지 보고 팀을 구성해요. 그래서 다른 기수까지

함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밴드도 있어요. 그것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서로 모으기도 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마을문화교육활동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인천 서구 생태탐구 프로그램 시민 LAB'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서구문화재단과 많은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문화 활동가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 지역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한 거죠. 세 개 팀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본인들이 구민 대상으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포럼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역량 강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멘토 역할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까지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준비하다가, 비대면 상황으로 다 전환되면서 줌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갈아엎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생태하천 하천 탐험'과 인천의 청라 호수 공원을 배경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불로동이라는 생태하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 '생태적 삶 시민조사단-생태문화포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신 분들은 하나의 거버넌스 주체로서 작동이 되는 거죠. 문화도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룹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문화도시추진 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세요. 리더로서 그 정도까지 성장하시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모집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도 다 활동가분들이 직접 만드십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시는 거죠. 물론 전문가분들하고도 역량 강화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환까

지 진행합니다. 저는 <네모의 꿈>에서는 교환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대면 교육용까지 갔다가, 비대면용까지 다시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수원도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안에 사업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활동가분들께서 핵심 가치 중에 마을 가치,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사비와 같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혹은 '과연 우리가 이 지역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스터디가 없는 거죠. 기획과 실행은 있는데 그사이에 빠져 있는 게 역량 강화인 거죠. 지금 여기 <네모의 꿈>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역량 강화를 진행하면 충분히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고 문화도시 사업의 리더로서 참여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 그룹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룹의 참여 주체이신 거죠. 시민 그룹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한 뒤 다시 어떤 리더로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모의 꿈>은 이미 새로운 시작 안에서 어떤 출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이죠. 하나씩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서 향후에는 협의체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이 <네모의 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체 아파트의 협의체, <네모의 꿈> 협의체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에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홍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활동가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문화도시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사와 대표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고 싶은 것인지와 같은 것들은 대표자가 나서서 아파트 주민센터 대표와 같은 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다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 매개자로서 강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 활동 쪽에 조금 방점이 많이 찍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대표 활동가를 통해서 나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처럼 수료식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과 함께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것은 꼭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년간 진행한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보면 활동가와 강사가 지금 혼재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연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활동가의 역할은 물론, 두 개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다르게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안에서 아파트 공동체의 활동이 문화수업이나 교양과정으로 머무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확장해서 활동과 연결되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활동가와 강사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활동가와 강사는 다른 영역의 활동인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박경홍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문화강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문제나 이슈와 같이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과 결합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단은 어떤 문화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확장되어 주기를 바라는데,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승용 교수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주임교수

네, 제 생각으로는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네모의 꿈> 활동가의 의미를 한번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명칭은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인천만 해도 마을 문화 교육 활동가, 마을 교육 활동가, 마을 활동가. 도시재생은 그래도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명확한 명칭으로 쓰긴 하는데, 대부분은 활동가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네모의 꿈> 활동가들에 대한 의미나 개념 정리를 해서 좀 명확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모의 꿈> 활동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홍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해 주신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어떤 마을로 투입되고, 활동할 때는 강사의 역할로 더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강사는 별도로 있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관계 형성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획에 더 집중해서 진행하는 편인가요?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주임교수

그것은 공모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획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강사의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역 내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향하실 건지, 아니면 아파트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시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하는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모임들이 지속되기 위한 하나의 매개자 역할을 활동가분들이 하시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꾸 사회적 역할을 재단이 요구하거나 혹은 본인들 스스로가 자꾸 사회적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지쳐서 혼자 남아 계세요. 일단 우리가 제일 즐거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만 할지, 그런 지점부터 다시 찾아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분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정말 카멜레온처럼 변하십니다.

박경홍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생활문화 동아리 성의 아파트 커뮤니티로 할 거냐, 아니면 아파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활동이 될 거냐. 아마 이것이 문화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성낙경 선생님,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낙경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념을 내부에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활동만 하지는 않죠. 기획을 하죠. 기획하고 같이 활동하죠. 그리고 강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전문성. 지금 <네모의 꿈>이나 서울에 있는 '마을예술창작소'나 다 똑같은 게, 외부에서 훌륭한 전문가를 모셔오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와 함께하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지 않고, 동네 사람으로서 참여할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활동가, 강사, 코디네이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지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정리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명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장르를 지향하는 동아리 활동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때 장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수단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서 우리 다양한 거 해요. 할 때 그냥 썩 가긴 힘들잖아요. 근데 재미난 춤을 춘데, 그럼 '나는 잘하지 못하지만 한번 같이 춰볼까?' 아니면 '건강하기 위해 몸 운동을 하는데, 그럼 좀 같이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친해진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친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원래 하자고 했던 춤을 출 수 있지만, 만약에 광고 중흥S클래스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걸 다 무시하고 춤을 추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이 생길 것이라

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1년 안에 되진 않죠. 1년 2년 쌓이면서 지지자가 생기다가,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 이유에서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유기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거룩한 자신을 희생하는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내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하지 마셔라, 옆에 사람한테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지칠 때 지친다고 얘기하고, 놓고 싶을 때 놓고 싶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모였던 사람이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 공간까지 가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고, 어떻게든 같이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 커뮤니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동아리 활동으로 많이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려는 공동체는 문화 안전망, 문화 돌봄입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함께 가고, 기다리고 같이 가고 또 격려하고 토닥이는 차원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2012년부터 했어요. 3년 정도 마을공동체 활동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패배감이에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시 그런 활동들에 복귀되지 못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방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완급을 조절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좀 진행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홍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낙경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담당 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처음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동아리, 생활 문화 공동체로서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사업 안에서 이것을 연장할 때는 그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망을 만들며 함께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항상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쉽게 될 것 같지만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게 담당자로서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조금 수렴하겠습니다. 각자 고민하는 것이 있고 어떤 점들을 해줬으면, 내가 또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담당자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Zoom이나 문서 형식을 통해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수용하고 활용해서 문화도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옥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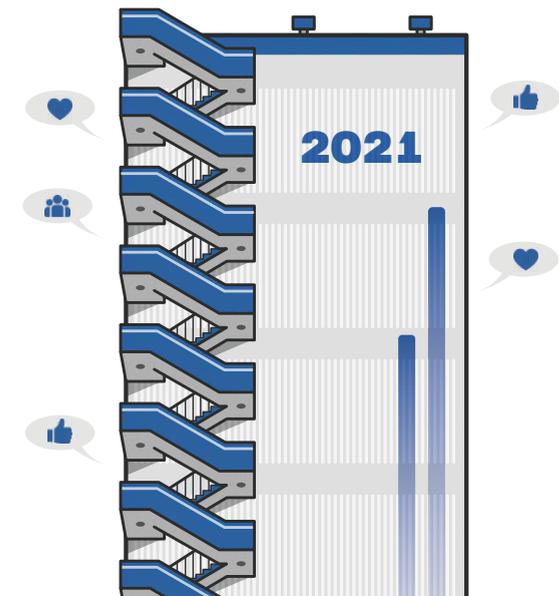
이선옥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네, 이미 많이 시간이 흘러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업에 대해 문서나 관련된 보고서로는 확인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은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4년 차로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서 변화나 성장의 모습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제가 타지에 계신 전문가분한테 들을 때 수원은 더딘 것 같은데 느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되게 모호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사업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확 뭔가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즐거움도 찾으시면서 동시에 의미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각각의 아파

트마다 활동하시는 형태들도 다르고 또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서로 굉장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마을 활동 일종의 활동가와 강사에 대한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법정 문화도시가 된 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앞으로 저희가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통해서 만난 시민분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민분들도 부지런히 만나야 하고 또 전문가분들과의 협업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과 중압감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핵심적인 걸 가져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자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은 결국은 시민 주체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을 꾸준히 이루어 주신 시민 활동가분들과 함께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 해결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의견

남해복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
주민강사

저희는 경로당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동체의 문제점 그리고 확산과 소통에 핵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약 20개의 프로그램을 주 2회, 2시간씩 강의하며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분리배출된 것을 쏟고 상황을 검토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모범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친환경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텃밭은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사용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주기를 권유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 영화 상영도 하고, 소통을 위해 인터넷 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카페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받는 문화에서 주는 문화로 변화하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아주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했고 우리 어르신들도 만족하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앞으로도 크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진중연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
대표활동가

저는 사실 대표 활동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사회에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대표 활동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을 모으고 또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 활동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강좌나 아니면 워크숍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영관

코오롱 하늘채
주민강사

네, 저는 구운동 코오롱 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는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됐어요. 올해는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주 2회, 2시간씩 진행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분들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교육 덕분에 폴더폰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스마트폰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문자나 카톡, 띄어쓰기와 같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을 배웠습니다. 80대 한 어르신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졌고 또 경로당 회원들끼리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또 백설마울과 교류의 시간이 있었는데, 1회였지만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이 없을 때도 공동체가 활성화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체 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씩 모으다 보면 꾸준히 활동이 이어질 겁니다. 강사 또한 주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김세연

민영 루이스
대표활동가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저희와 교류하셨던 선생님도 계시네요. 재단에서 끊임없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려 하고 또 지원해 주시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네모의 꿈>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결과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희 주민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져다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방원

광고 대광로제비양 대표활동가

저희는 2019년도에 <네모의 꿈>에 아파트 텃밭 정원 만들기로 도전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안에 있는 자그마한 공지에 텃밭 23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의 많은 동참이 있어서 텃밭이 23면에 불과했지만, 첫해에 40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의 약 25% 정도가 텃밭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관계로 텃밭 활동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어요. 올해 3년째 텃밭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46세대가 텃밭을 운영하고 싶다고 지원했습니다.

2년 차 활동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넓혀서 아파트 화단에 수국 정원 만들기를 도전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총 10개 동인데요. 3개동에 수국을 심었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9명이었습니다. 6월에 활짝 핀 수국 화단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또 새로운 활동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식재된 수국 밑에 4년생 야생화하고 1년생 야생화를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활동을 아파트 내부적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 활동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뒤쪽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유아숲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파트에서 화초를 기르고 화분을 만드는 거죠. 화분은 체험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끔 해 주신 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화단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은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 하루에 2시간 이상 식물과 화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전문가들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면, 저희가 더 탄력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효진

광고 중흥S클래스 주민강사

저희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까지 2년 차 활동에 접어들었어요. 신규 입주 아파트였던 저희는 처음에 서로를 좀 알아가며 이웃사촌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교롭게 코로나 시기에 이웃을 서로 몰랐던 상황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11월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광고 중흥S클래스는 수원의 대표로 전남 순천까지 가서 버스킹을 공연하고 왔습니다. 입주민분들과 수원시의 관계자들께서 오셨었는데 정말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주셔서 함께 버스킹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저희 광고 중흥S클래스는 <네모의 꿈>을 통해서 서로를 살피는 관계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로 알아가기에도 급급해서 공동체에서 문제점 해결이나, 주민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문화도시 수원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기획 단계부터 주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좋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시설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쌓고 노력한 것들을 멈출 수 없기에 저희끼리 모여서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꾸준히 연습해서 수원을 알리는 공연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해 공동체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순애

백설마을 주공2단지
주민강사

저희는 정자3동에 있는 백설마을 주공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어른들께 국악을 가르쳐 드리고, 주간 보호 센터에 가서 봉사도 하고, 예쁜 한복을 입어보고 화장하는 체험을 하며 참 즐겁고 만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악을 많이 가르쳐 드리지 못하고, 공연할 수 있을 정도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대신에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또 레크리에이션 율동으로 어른들의 몸관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나는 장소가 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으나 활동 덕분에 매일 같이 만나는 즐거움, 또 신나게 어딘가에 참여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아침마다 모이는 순간을 어른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모의 꿈>이 또 된다면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저희 <네모의 꿈>을 주관해 주신 문화재단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희

민영 루이스
대표활동가

저희 아파트는 과거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였는데 이제 입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를 위해 소통이 잘 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하다가 기타 연주와 마크라메 공예 핸드폰 가방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소통 활성화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른들과 했던 공예 제품 만들기는 재밌었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동아리 활동으로 기타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리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네모의 꿈> 덕분에 잘 배웠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더 견고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음악이나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이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아파트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식

광고 행복주택
주민강사

저희는 <네모의 꿈>에 3년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임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5% 정도 입주민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표회의도 구성했지만 와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모의 꿈>을 활용해 쉬운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는 목표로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네모의 꿈>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알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모여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하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더 거들고, 더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네모의 꿈>은 <네모의 꿈>으로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접점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네모의 꿈>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나가지 않아도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 해결로는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보통 2분기에 하는데, <네모의 꿈>은 4분기에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순서면 좋은데, 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하고, 이후에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탈하거나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활동을 다 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접점의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활동은 문화재단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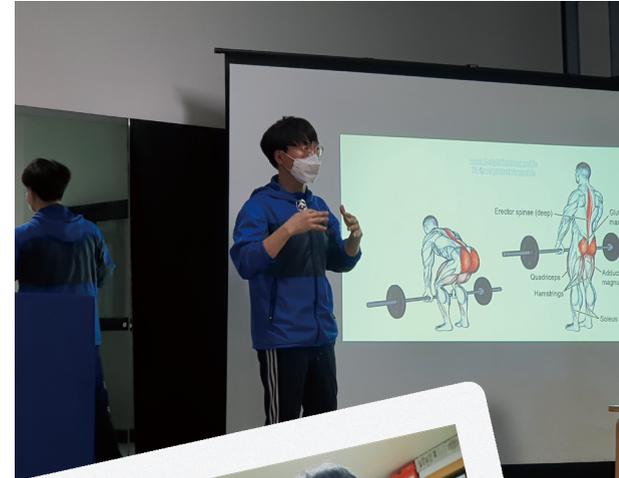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웠는데,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워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The spare's dream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 해결할 수 있도록 <네모의 꿈>이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Community



예술 활동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번을 계기로 잘 배웠고, <네모의 꿈>이 끝나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웃끼리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music

도시문화 일상학교

2021

네모의 꿈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인쇄일 2022.02.25

발행일 2022.02.28

제작 그런 의미에서



수원특레시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 문화도시 수원 ·